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은 지난 10월 28일 예술의전당에서 '제7회 세일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 제7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 개최

정승일 (재)세일음악문화재단 이사장[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고문·세일이엔에스(주) 회장]은 지난 10월 2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7회 세일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했다.

올해 세일 한국가곡의 밤은 최승한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지휘하는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소프라노 김영미·배기남,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신동원, 바리톤 공병우, 베이스 양희준 등이 한국가곡의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또한 제7회 세일 한국가곡콩쿠르 성악부문 수상자인 소프라노 임은송, 바리톤 정재원을 비롯해 작곡부문 수상자인 이성민의 '꽃잎이 흔들리는 날은' 등이 초연됐다.

이날 행사에서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은 한국가곡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공로로 소프라노 이규도 씨에게 '제7회 세일 한국가곡상'을 수여했다. 소프라노 이규도 씨는 1940년생으로 1959년 이화여대 성악과 및 1973년 줄리아드

음대에서 수학했고 1973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외에서 28편의 오페라를 공연했으며, '동심초', '학', '추억'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름다운 가곡을 널리 알려 한국가곡의 위상을 고취시켰다. 1976년 이화여대 성악과 교수로 부임한 이후 후학양성에도 큰 힘을 쏟았다. 현재 이화여대 명예교수 및 국립오페라단 이사 등 여러 직책을 맡아 한국음악계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정승일 이사장

한편, 정승일 회장은 음악예술의 발전과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08년 (재)세일음악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난 2009년부터는 성악가 발굴과 함께 잊혀져가는 한국가곡의 부흥을 위해 '세일 한국가곡의 밤'을 개최하고 있다. 